

청암대 장애학생학습지원실 개관식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일환 정보과학관 2층 공간 확장

김현나 센터장 “장애 학생 중도탈락 방지·편의 제공”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최근 장애 학생 학습지원실 구축 관련 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서형원총장을 비롯하여 보

직교수, 센터관계자들과 총학생회, 장애학생 및 교육지원 인력학생 30여 명이 참석해 학습지원실 개관을 축하했다.

장애학생지원실은 2020년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사용했던 정보과학관 2층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공간을 확장해 구축하였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김현나 센터장은 “학습지원실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수·학습지원, 이동지원, 생활지원 등 대학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 중도탈락지도 방지하며 편의 제공 등을 통한 성과 제고로 우수 장애 대학생 양성에 기여하는 학습지원실이 되겠다.”고 밝혔다.

청암대학교는 앞으로도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및 이동지원 향상을 비롯한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형원 총장은 “새로 개관한 학습지원실이 장애우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훈 기자

목포시, 저소득 가정 재래식 화장실 개선 시작

목포시가 저소득층 가정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계층 20여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장점검 뒤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후 수급기준 및 연령과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7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기초수급자·차상위자 자가주택 재래식 화장실 사용 가구 대상

이달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자가주택이 재래식화장실인 경우에 한하며 이달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

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환경보호과(270-333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장흥읍지역사회보장協, 저소득층 안전·행복 울타리사업 추진

매월 사례회의서 대상 가정 선정...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국선, 강경일)는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저소득층 안전·행복울타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외계층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 안전·행복 울타리 사업은 매월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 가정을 선정한

다.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금으로 주거환경 개선, 생활용품 지원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책 사업이다.

6월에는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7가구에 보수가 필요한 출입문, 중전장, 싱크대등 교체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도움을 받은 주민은 “주방 천장이 내려앉아 불안하고 출입문 열고 닫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깔끔하게 수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국선 장흥읍장은 “불편한 환경에도 집수리 비용 때문에 선택지를 고치지 못한 대상자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안전·행복 울타리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운영

천연 벌레해충퇴치 스프레이 제작 해 소외계층에 배부

강진군과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천연 벌레해충퇴치 스프레이를 제작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배부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군 및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남복지재단에서 주관한 ‘2020년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받은 사업비 중 일부로 추진됐다.

27명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해 천연 벌레해충퇴치 스프레이를 만들어 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배부를 마쳤으며 대상자들에게 여름철 폭염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욱 강진군수(공동위원장)는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복지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강진, 건강한 복지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장년들을 위한 요리교실’, ‘노인·장애인가구 정등 무선스위치 설치’ 등 취약·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군, 노인돌봄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담양군이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연중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까지 1,377명의 어르신들이 2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을 적극 발굴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안전·안부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활동 등 각 가정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건강유지를

돕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고령부부, 조손가정 등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와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와 주민행복과(☎061-380-3121)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영로오 시티 Jangseong